



종두기구

글口신좌섭(서울대병원 병원사연구실 겸임교수)

종두기구는 천연두 예방을 위한 우두접종에 쓰던 기구로 근대 초부터 일제시대까지 사용되었다. 우리나라에 우두법을 도입하고 널리 보급한 지석영 선생의 우두신설에 의하면 위 사진의 좌측에 있는 끝 날이 날카로운 마름모꼴의 침은 종두침, 중앙의 사각형 유리기구 중 위의 것은 파리반(玻璃盤)이며 아래의 뚜껑과 합하여 파리합자(玻璃盒子)라고 불렀다. '파리'는 유리를 뜻한다. 이밖에 유리로 만든 모세관 파리모관(玻璃毛管) - 끝을 밀랍으로 봉했고 오늘날의 Ampule과 비슷한 모양 - 이 있었다. 우두를 접종할 때에는 파리모관에 담긴 두장(痘漿-접종액)을 파리반에 담은 후 종두침에 접종액을 묻혀 상피 내 접종하였다.

사진의 목재 상자는 종두시술원들이 종두기구를 넣고 다니던 휴대함으로 윗면에 '종두기계'라고 쓰여 있는데, 기계(器械)란 기계(機械)와 달리 구조가 간단한 의료 및 화학용 기구를 일컫는다. 1934년 6월 매일신보에 실린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종두시술원은 2,147명으로 당시 우리나라의 의사 수(조선인과 일본인을 합한) 2,163명과 비슷한 규모였다.

종두를 시행하면 증명서를 발급했으며, 천연두가 유행할 때에는 집집마다 가족단위로 임시 대문에 '종두표(種痘標)'를 붙였다. 1931년 3월 매일신보 기사에 의하면 명치정(지금의 명동) 불란서 교당에 있던 중국인 한 명이 천연두에 걸림에 따라 3월 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사이에 명치정을 중심으로 한 부근 일대 6천여 명에게 경찰을 동원하여 강제종두를 실시하기로 하였다는 기사가 실려 있어 이채롭다. ㅈ